전국에서 활동하는 청년 아티스트 260팀의 작품을 판매하는 '여덟 번째 파장 하우스 충장점'

개성 만점 청년 창작자들의 아트샵

동구 플리마코 협동조합 '여덟 번째 파장 하우스 충장점' 오픈
전국 260팀 참여…굿즈·문구·캐릭터 상품 등 8000여점 판매

다양한 캐릭터의 노트, 귀여운 모양의 쿠션, 개성이 넘치는 다이어리.

넓은 편집 매장 안에서 만나는 다채로운 디자인·아트 제품이 눈길을 끈다. 요즘에는 문구 매니아들도 많고, 굿즈나 캐릭터 상품도 인기가 높다. 이런 추세에 맞게 지역에서도 쇼규모이기는 하지만 '자신만의 브랜드'를 론칭하고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청년작가들이 눈에 띈다.

작가들에게는 판매 장소를 제공하고, 구입자들에게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는 디자인·아트 제품 대규모 판매 공간이 시내 한 복판에 문을 열었다. 청년창작자들을 위한 상생매장 '여덟 번째 파장 하우스 충장점'이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 1가 조선대 동창회관 건물 1층에 자리한 '여덟 번째 파장'은 80평 규모의 넓은 매장을 갖추고 있다. 기존에 지역 제품을 판매하는 아트숍들이 소규모로 운영되던 것과는 비교되는 행보다.

충장 매장은 동구 마을 기업 플리마코 협동조합(대표이사 김도영)이 오픈했다. 2019년 동명동에서 시작된 '여덟 번째 파장'은 청년작가들과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지금까지 100여명의 로컬 창작자들이 입점했고, 20회가 넘는 전시회가 열려 지역 작가들에게 자립 기반을 제공했다. '여덟 번째 파장'이라는 이름은 일곱 빛깔 무지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그 너머에 있는 색다른 것을 찾아 세계적으로 재능을 펼치자는 의미를 담았다.

확장된 플랫폼인 충장점에서 소비자와 만나는 아티스트는 지역 작가 102팀을 포함해 전국에서 모여든 창작자 260팀이며 상품의 종류는 8000여종에 달한다. '다람다락', '볼라 아카이브', '루야랜드', '러브아워', '체리체리', '흐느적 친구들'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브랜드들이 망라됐다.

지난 2015년 설립된 플리마코 협동조합은 아트 플리마켓을 꾸준히 진행하며 지명도를 쌓아온 기업이다. 당시 서울 홍대 플리마켓 등에 참여하기 위해 상경하는 지역 작가들을 보고 김 대표이사가 작가들과 함께 대인시장 등 기존 야시장과의 차별화를 표방하며 동명동에서 아트상품을 판매한 게 그 출발이었다.

이후 행안부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서석초 앞에서 플리마켓을 열었고 지난 2016년부터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브릿지 마켓'을 개최, 큰 사랑을 받았다. 또 지난 4월과 8월에는 각각 광주 신세계와 대전 신세계에서 팝업숍을 운영하기도 했다. 플리마코는 또 최근 동명동에 문을 연 '여행자의 집'도 위탁받아 공간 디자인을 진행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6년간 꾸준히 행사를 열며 구축해온 아티스트들과의 네트워크가 이번 충장점 개점에도 큰 힘이 됐다. 신진 작가 발굴을 위해 새로운 아티스트들에게도 입점 기회를 제공했으며 타 지역 작가들의 경우 인스타 팔로우 숫자, 광주에 진출하지 않은 작가등을 입점시켰다.

'여덟번째 파장'은 앞으로 작가들의 아트콜라보를 통해 자체 브랜드도 개발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위드 그랜드'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제작, 부산 박람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일러스트페어 등도 진행해볼 계획이다.

조선대링크산업단(단장 김춘성)과는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 창작자들의 자생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예술경영, 산학협력, 로컬비즈니스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링크사업단은 매장 2층에 자리한 공간을 문화, 예술, 관광 컨셉으로 특화시킬 예정이다. 학생, 기업, 작가, 소비자들이 모두 어우러지는 쉼터같은 공간으로 꾸미고 다양한 자료들도 구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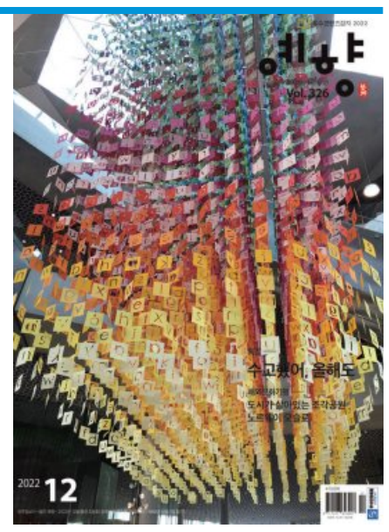
플리마코 협동조합 홍순길 이사는 "지역 작가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식 판로를 개척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해 작가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3일간 임시영업을 해본 결과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고 매출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여덟 번째 파장 하우스 충장점'에서 만나는 다양한 제품.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12월호

예향



느림과 쉼, 힐링을 찾아 떠나는 송년 여행지
도시 전체가 거대한 조각공원 노르웨이 오슬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22년이 저문다. '코로나 19'와 함께한 3년만에 '일상회복'에 들어갔지만 고물가와 경제난, 이태원 참사까지 더해져 몸과 마음이 피로해져 있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송년호는 느림과 쉼, 힐링을 찾아 떠나는 송년 여행지와 연말에 볼만한 책·영화를 소개하며 독자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 한해를 되돌아보며 1년간 열심히 일한 내 자신에게 스스로 말해보자. "수고했어! 올해도!!"

지난 한 해 지역 문화계를 결산하는 '아듀 2022'도 준비했다. 조르주 루오전, 이건희 컬렉션 등 광주·전남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대형 전시가 잇따라 개최돼 미술애호가들을 즐겁게 했다. 김동하 소설가, 손택수 시인, 강경아 시인 등 지역 출신 작가들의 다채로운 창작집도 출간됐다. 본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공연계도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을 선보이며 무대를 채워나갔다.

예향 초대석에서는 구수환 (사)이태석재단 이사장을 만나본다. 탐사보도 프로그램 PD 출신인 구수환 이사장은 다큐 '울지마 톤즈'와 '부활' 제작과 대중강연을 통해 이태석 신부의 헌신적 삶과 '섬김의 리더십'을 널리 전파하고 있다. 다큐에는 공감과 경청, 소통 등 한국사회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구 이사장은 "봉사와 헌신의 삶이 시대정신"이라고 말한다.

'남도 오디세이 美路味路(미로미로)'가 연말을 맞아 떠난 곳은 '생태관광 일번지' 곡성이다. 1933년 개통한 옛 곡성역사와 '섬진강 기차마을'은 여행자들의 발길을 이끈다. 섬진강과 어우러진 아트빌리지 '시그나기'는 새로운 문화예술·체험·숙박 공간으로 기대를 모은다. 곡성 특산물인 토란으로 파이만쥬를 개발한 '가랑드'와 젊은이들이 즐겨찾는 막걸리 '시향가'를 탄생시킨 로컬브랜드 스토리도 재미난다. 곡성의 매력을 찾아 길을 나서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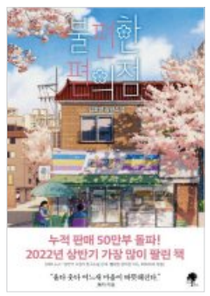
'해외문화기행'은 도시 전체가 거대한 조각공원이라고 알려진 오슬로로 향한다. 빙하의 나라, 바이킹의 후예로 잘 알려진 노르웨이 오슬로는 요즘 유럽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변신중이다. 뭉크미술관, 오페라하우스, 중앙도서관을 오슬로 항만지역에 건립하는 피오르시티 프로젝트와 거리와 공공장소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다. 시민들의 문화쉼터는 물론 관광객들의 명소로 자리잡은 오슬로의 공공조형물들을 소개한다.

전남도립미술관에서는 '힐링 전시' 조르주 루오전이 진행되고 있다. 58점의 판화 연작으로 구성된 '미제레레' 작품 해설을 담당한 정웅모 에밀리오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성미술담당 신부와 함께 작품 세계로 들어가본다.

이외에 '클릭, 문화현장'은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의 배경이 된 과천국립현대미술관의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모네와 피카소, 파리의 아름다운 순간들' 현장으로 안내하고,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다섯번째 이야기는 퇴계 이황을 배향한 안동 도산서원에서 들려준다. 끝이 아닌 시작을 향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KIA타이거즈 마무리 캠프 열기를 담은 '스포츠 이야기'도 읽을거리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올해의 한 책 '불편한 편의점'
전남대도서관 독서후기 공모



전남대가 올해의 한 책으로 선정한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은 동네 작은 편의점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다. 이웃들의 시난고난한 삶을 공감어린 서사로 풀어내 많은 이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특히 소설은 특정 연령대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연령층의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

전남대 도서관이 오는 4일까지 '불편한 편의점'에 대한 독서후기를 공모한다. 광주전남 시·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남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광주전남이 읽고 톡 하다'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출품작은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재학생과 시·도민별 각각 6작품을 선정한다. 최우수상에 각 30만원의 상금을 비롯해 우수상, 장려상을 시상한다. 또 출품작 가운데 고득점자순으로 소정의 상품도 증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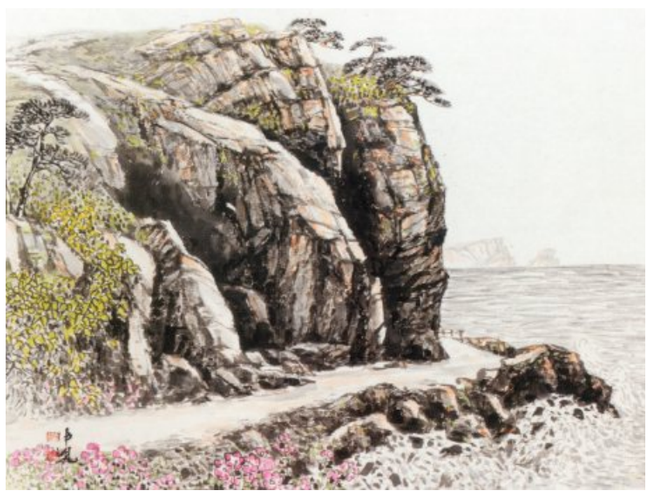
장우권 도서관 관장은 "독서후기 공모전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광주전남이 읽고 톡 하다'는 향후에도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무등과 한라' 그림으로 맺어지다
광주한국화실사회-제주문인화연구회 교류전, 1~7일 무등갤러리

무등산과 한라산의 기운을 받은 양 지역 화가들이 뭉쳤다.

지난 1994년 30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창립한 광주한국화실사회는 이듬해 예술의 거리 야외 전시장에서 창립전을 연 이래 매년 회원전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제주문인화연구회와 인연을 맺고 '수묵의 상'을 주제로 제주문화예술회관에서 첫 교류전을 열기도 했다.



이재민 작 '믿음'

코로나로 잠시 멈췄던, 그림으로 맺어진 우정이 다시 한번 꽃을 피운다. 광주한국화실사회(회장 이재민)와 제주문인화연구회(회장 장경모) 교류전이 1일부터 7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개막 행사 1일 오후 5시.

'무등과 한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두 단체 회원들은 넉넉한 여백과 간결한 필치가 어우러진 개성 있는 작품들을 전시한다. 한국화의 전형성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작품들이다.

광주한국화실사회의 제28회 전시회를 겸한 이번 행사에서는 실사회 고문을 맡고 있는 김인화·이민식 작가를 비롯해 국경하·기경숙·기덕·김금옥·홍정남·홍정호 등 40여명의 회원이 작품을 선보인다. 제주문인화연구회에서는 강봉효·김미경 회원등 모두 20여명이 출품했다.

작가들은 제주 성산, 월출산, 서석대, 물염정, 정방폭포 등 한국의 아름다운 사계를 담백한 한국화로 풀어냈다. 또 매화, 창포, 모란, 해바라기, 소나무 등과 함께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도 화폭에 담았다.

/김미은 기자 mekim@

겨울에 감상하는 겨울영화 10편
1~4일 ACC 문화정보원 극장 3

'철도원', '설국열차', '러브레터' '크리스마스 악몽' 등. 열거한 영화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겨울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눈내리는 겨울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멜로영화는 서정적 감성을, 재난영화는 긴장과 스릴를 선사한다.

어느새 성큼 우리들 곁으로 다가온 겨울, 다양한 장르의 겨울 영화 8편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영화, 겨울'을 1일부터 4일까지 개최한다. 문화정보원 극장 3.

첫날은 일본 특유의 서정성과 소박한 감성이 담긴 후루히타 야스오 감독의 '철도원'을 볼 수 있다. 또한 부조리에 맞서는 생을 건 이들의 사투를 그린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도 만난다.

설원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애닮은 첫 사랑 이야기도 관객들을 찾아온다.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레터'는 흰 눈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첫사랑의 울림을 선사한다. 리차드 커티스 감독의 '러브 액츄얼리'는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모음형식으로 담고 있어 서로 다른 상황과 인물들이 보여주는 다채로운 사랑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철도원'

또한 유령들의 사랑 얘기이자 엇박자의 뮤지컬이기도 한 팀 버튼의 헨리 셀릭 감독의 '크리스마스 악몽'과 기상이변으로 빙하기가 도래한다는 설정을 토대로 서사가 전개되는 올랜드 에머리히 감독의 '투모로우'도 기대되는 작품이다.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한 남자의 가슴 아픈 사랑을 절절하게 풀어낸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는 잔잔한 울림을 준다. /박성천 기자 skypark@